

이항대립성을 통해 본 회귀 서사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과 그 억압 구조의 의미

A Study on the Meaning of Binarism and Its Oppressive Structure in the Web Novel <Reborn Rich>

홍우진*

국문요약 본고는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의 회귀 서사를 중심으로, ‘머슴/주인’, ‘이방인/정통’, ‘가짜/진짜’라는 이항대립성과 그 반복을 재 서사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억압 구조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 진도준은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 하며 외부적 억압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내부의 규율과 경쟁 심리, 기대감을 보다 정교한 억압으로 대체하였다. 이항대립의 끊임없는 반복은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장하고, 독자들에게 빈번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중독을 유발하며, 플랫폼 웹소설의 결제 유도 구조에 최적화된 산업적 전략으로 작동한다. 이렇듯 이항대립을 통한 재서사화는 독자로 하여금 현실의 부조리를 대리 체험하고, 전복된 정체성을 통해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 게 한다. 이는 회귀 서사가 현대인의 욕망과 사회적 모순을 반영하며, ‘사이다식 전개’를 통해 사회적 욕망과 모순을 해소하도록 유 도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현대 사회의 성과주의와 계급 구조를 가장 대중적으로 재현한 사례로서, 억압 구조의 재조직과 판타 지적 해방을 동시에 수행하며, 현대 대중 서사 속에서 웹소설이 문화적 주류로 자리잡은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핵심어 웹소설, 회귀, 재벌집막내아들, 이항대립성, 재서사화, 억압구조

- 차례**
1. 서론
 2.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타난 회귀서사와 이항대립성
 3. 회귀 서사의 반복적 재서사화와 억압구조
 4. 결론

1. 서론

본고는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 ‘윤현우’가 회귀한 후 ‘진도진’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서 변화하는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이항대립성 파악을 통해

회귀 서사의 억압 구조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은 산경 작가의 현대판타지 웹소설로 웹소설과 드라마로 동시에 대중의 큰 인기를 끌며 회귀물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 이 작품은 단순한 회귀 서사 모티프를 지닌 판타지를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계급 갈등을 이야기 속에 반영하며 학계의 주목¹을 받았다. 사전적 의미로 ‘회귀’는 한 개인이

1 전철희, 「<재벌집 막내아들>의 정치적 무의식」, 『동아시아문화연구』 92,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145~165쪽; 진도준과 재벌 가문의 대립을 통해 세습적 계층 구조를 고발하며, ‘능력’ 대신 ‘운’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카지노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지적하였으며, 박지희, 「한국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 현실 재현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66, 인문콘텐츠학회, 2022, 151~173쪽; 작품이 경쟁과 효율을 최고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재현한다고 지적하였다.

특정한 시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²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 ‘윤현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순양그룹의 “머슴”으로서 오너 일가의 온갖 악행과 실책을 수습하는 역할을 담당하다 토사구팽 당하여 죽음을 겪고 회귀한다. 회귀 후, ‘윤현우’는 창업주 진양철의 막내 손자 ‘진도준’이 된다.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둘러싼 가문 내부의 기나긴 복마전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³가 <재벌집 막내아들>의 핵심 서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회귀 서사’이다. 작중 배경이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회귀 서사’는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등장인물들의 관계성을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된다. 주인공 윤현우가 대기업 순양그룹의 “머슴”에서 회귀 후 진양철 회장의 손자인 진도준이 되어 겪는 서사 전환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사회적 기억과 추억을 재생시킨다. 또한 이방인에서 정통 계승자의 삶으로 변하게 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은 ‘차이’를 느끼게 된다.

작중 주인공 윤현우가 죽음 이후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회귀 과정은 단순한 시간적 전환이 아니라, 인물의 사회적 정체성과 위상이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의 발생’을 보여준다. ‘머슴’이라는 하층 계급으로서 철저히 이용당하던 윤현우는 회귀를 통해 재벌가의 ‘정통 계승자’라는 상층 계급의 신분을 얻게 되는데 이 두 정체성은 명확한 이항대립성을 지니며, 이 ‘차이’가 바로 이야기의 중심 긴장을 형성한다.⁴ 따라서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

준이라는 인물은 윤현우와의 대비를 통해 더욱 뚜렷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얻게 되며, 이러한 대비는 독자에게 한국 사회의 계급적 현실과 그 안에서의 권력 이동 가능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현대인들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체계 안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살고 있다. 이런 체계 속에서 현대인들을 과거로 돌아가길 욕망하며 다른 이가 되거나,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회귀 서사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회귀 서사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은 적다. 먼저 김경애⁵의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웹소설에서 회귀·빙의·환생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회빙환’ 서사를 단순한 서사 모티프가 아닌 시간적 속성을 지닌 스토리 유형이자 마스터 플롯으로 규정하였다. 회빙환 서사가 본질적으로 ‘후회’와 ‘자조’, 그리고 ‘재건’과 ‘개선’의 욕망을 담은 시간 되돌리기 서사임을 밝히며, 회빙환 서사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현대 한국 웹소설의 핵심 서사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웹소설의 핵심 서사 구조를 문화심리학적 연구로 바라본 관점이었다. 또한 최지운⁶의 논문은 회귀물이 단순히 웹소설에서 인기를 끈 장르를 넘어, TV드라마로 트랜스미디어될 때 어떠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와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대표적 회귀물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들 작품이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 ‘재력가’와 ‘구원자’ 캐릭터를 통해 현대적 판타지를 실현하는 방식을 조명했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본고는 최지운의 의견을 수용 및 확장하여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성과

2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282쪽.

3 조형래, 「웹소설의 역사-현실과 게임적 세계관: 산경의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9(3), 대중서사학회, 2023, 321쪽.

4 소쉬르는 차이를 지각되게 한다든가 무시되게 하는 짜임을 임의적이며 동시에 체계적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의 기호(sign)의 의미는 그것이 다른 기호들과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따라 정해진다(오원교, 『구조주의와 기호학』, 신아사, 2007, 27쪽). 이러한 소쉬르의 ‘차이’ 개념은 <재벌집 막내아들>의 회귀 서사와 인물 관계성 분석에서 중요한 해석적 틀을 제공한다.

5 김경애, 「회빙환과 시간 되감기 서사의 문화적 의미: 웹소설 <내 남편과 결혼해 줘>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5, 한국산학기술학회, 2024, 734~743쪽.

6 최지운, 「TV드라마 속 회귀물의 함의 연구: <어게인 마이 라이프>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8, 인문콘텐츠학회, 2023, 133~150쪽.

작가가 구축해 낸 체계를 미시적, 분석적으로 접근해보겠다. 반면 김나은⁷은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의 흥행 요인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작품의 성공을 단순히 회귀나 재벌이라는 인기 키워드에 한정짓지 않고, 다중장르적 요소의 결합, 인물 중심의 감정 서사, 트랜스미디어 전략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하였고, 유해인⁸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전통적인 환몽소설과 비교 분석하며 귀족적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형에 주목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흥행과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데 반해, 여진숙·김영학⁹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대상으로 흡수자와 금수자로 상징되는 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층 이동의 어려움과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수저계급론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하나의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상징성과 메시지를 해석하거나, 작품 외적 요인과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인물·배경·사건을 선형적·평면적·표층적으로만 해석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구조주의적 접근을 통해 회귀 서사의 내면적 작동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작가가 서사를 설계할 때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반대편’의 의미들을 하나의 체계로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간과한 서사 내부의 깊은 구조와 의미 생성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재벌집 막내아들>을 단순한 회귀·복수 서사가 아니라, 이항대립을 통해 사회적 억압 구조와 욕망을 재서사화¹⁰하는 구조적 장치

로 해석한다. 서사 내부에서 작동하는 이항대립 구조와 억압의 반복 메커니즘을 기호학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문 만큼 웹소설 연구에서 간과 되어온 구조적 의미 생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 또한 등장인물 분석을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단일 인물의 캐릭터성에만 집중하기보다, 등장인물 간의 관계성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항대립성, 즉 머슴/주인, 정통/이방인, 가짜/진짜 등의 대립성을 통해 발견되는 차이와 ‘회귀 서사’를 통해 반복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성을 통해 회귀 서사 웹소설이 단순한 장르적 유행을 넘어 현대 한국 웹소설의 지배적 마스터플롯(master plot)으로 자리 잡은 이유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타난 회귀서사와 이항대립성

<재벌집 막내아들>은 주인공 윤현우가 재벌가의 ‘머슴’ 같은 역할에서 버려진 후, 순양그룹 창업주의 손자 ‘진도준’으로 환생하여 다시금 삶을 살아가는 회귀 서사이다. 즉 <재벌집 막내아들>은 윤현우가 죽음을 맞이한 뒤, 회귀하여 순양그룹 창업주의 손자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서사는 단순한 시간 여행이나 환생이 아니라, 기억을 지닌 채 신분이 변모하는 인물의 관계들을 재구성하는 서사이다. 회귀를 통한 이 인물의 신분 변화는 곧 인물 관계망의 변화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계급, 사회적 위치에 대한 판타지를 경험하게 된다. 회귀 이후 전개되는 관계성의 변화는 인물의 지향점, 과거의 기억, 사회적 위치의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기호 체계를 형성한다.

7 김나은, 「현대 판타지 웹소설 흥행요인 분석: <재벌집 막내아들>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60,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4, 45~61쪽.

8 유해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통해 본 귀족적 영웅서사에 대한 지향: 환몽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9, 민족어문학회, 2023, 105~134쪽.

9 여진숙·김영학,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내재한 인식고찰」, 『역사와융합』 8(5), 바른역사학술원, 2024, 403~430쪽.

10 본고에서 말하는 재서사화는 기존의 억압 구조를 새로운 서사로 다시 쓰

되, 그 구조 자체는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서사적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억압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윤현우는 순양그룹에서 대외비 처리와 비자금 수송까지 수행하는 ‘그룹의 머슴’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규정한다.

“나는 부회장을 보필하는 미래전략기획본부의 일곱 명 실장 중 한 명이다. 나름대로 꽤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미 눈치챈듯이 회장일가의 온갖 지저분한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소위 뒷간 청소, 똥 치우는 일이 주된 업무다.”

-〈재벌집 막내아들〉002, 머슴의 일생¹¹

이러한 인물의 인식은 자신이 공식적 존재가 아닌 비공식적 도구임을 보여준다. 그는 곧 버림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이로써 관계성의 전면적 전환을 겪는다.

회귀 후, 주인공 윤현우는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살아가게 되며, 자신을 버린 가문의 내부에서 중심 인물로 변모한다. 초반부 그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낮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간주되지만, 뛰어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회장의 관심과 신뢰를 얻는다. 진도준은 회귀한 정보를 기반으로 가족 내부에서 ‘외부자’에서 ‘중심 권력자’로 관계를 바꾸며 서사를 주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회귀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비록 지금은 머슴과 다를 바 없지만 7만 순양 직원들 모두가 나의 위치와 업무를 부러워한다. 그들은 나보다 더 낮은 등급의 머슴 아니, 노예들이다. 그들은 노예로 살다 언젠가는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날 테지만 적어도 나는 머슴에서 집사로 승격할 기회라도 있다. 그리고 꼭 집사가 될 것이다.”

-〈재벌집 막내아들〉002, 머슴의 일생¹²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한국 자본

주의 조직문화에서 계급적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비정규 권력 수행자이자 감정 노동자이지만, 학벌·출신이라는 기호 체계 속에서 ‘승격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된다.

회귀 이후 진도준으로 새 삶을 시작한 그는 이제 ‘창업주의 손자’라는 정통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역시 본질적인 전복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과 맥락에서의 전유, 즉 윤현우는 회귀를 통해 위치만 바뀐 ‘머슴’이며, 억압은 변형을 통해 반복 되는 서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회귀 서사가 단순한 ‘전복의 서사’가 아니라, 이중 구조 속에서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재서사화로 작동함을 뜻한다. 재서사화란 원형의 서사를 충분히 활용한 서사의 재창조를 말한다.¹³ 다만 여기에서의 재서사화는 서사를 반복하면서도 억압의 구조를 더 공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념과 차별된다.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재서사화는 주인공의 회귀 이후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이는 단순히 계급 상승의 성공 서사가 아닌, 억압의 형식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폐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즉, 윤현우가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나 ‘창업주의 손자’라는 겉보기에는 특권적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는 또 다른 권력의 규율과 경쟁, 감시의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재서사화가 확인된다. 또한 이는 관계성을 통해 확인된다.

진양철은 가문 내 권위자이며, 초기에는 손자 진도준을 ‘이상한 아이’ 정도로 인식한다. 하지만 진도준이 제시한 정보력과 통찰력은 진양철에게 점차 감동을 주며 관계를 바꾼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진 회장은 피식 웃음을 터트렸다. 10살짜리 손자가 이런 기특한 소리를 하다니. 너무 양극단으로만 생각했다. 자신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라는 질문을 던

11 산경, 『재벌집 막내아들』, 문피아, <https://novel.munpia.com/69583>, 2017, 2화.

12 위의 책, 2화.

13 김창현, 「서사의 장르적 특성에 기초한 고전소설의 재창조 모형 연구: 『홍길동전』과 『흥부전』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8,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126쪽.

지니 모두 불확실한 답을 내놓았다. 현 정권이 백기를 든다, 버틴다 같은 추측성 대답만 가까스로 한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으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골고루 분산해서 보험을 들라는 대답을 누군가는 했을 게 분명하다.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이 대답을 10살짜리 손자가 던질 줄이야! 어째서 이런 뚱뚱한 모습을 이제야 발견했을까?”

-〈재벌집 막내아들〉007, 적극적 어필 中¹⁴

이처럼 진도준은 할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고 점차 신뢰와 후계자 감각을 획득한다. 이는 단순한 혈연 이상의 정서적 지지와 전략적 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회귀 이전의 비가시적 존재에서 가시적 권력자로 도약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진도준은 표면적으로는 가족 내 ‘정통 계승자’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지만, 실상은 순양그룹 내부의 치열한 승계 경쟁이라는 새로운 억압 시스템 안에 편입된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과거 머슴이 상사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움직였다면, 현재의 진도준은 ‘창업주의 기준’과 ‘자본의 논리’라는 더욱 정교한 규율 속에서 작동한다. 이처럼 억압은 단지 위치의 변화에 따라 형태만 달리할 뿐,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한다.

이때, 진도준이 가진 ‘회귀의 기억’은 그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는 그를 더 큰 책임과 자기 통제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는 미래를 아는 자로서,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역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으며, 미래라는 무형의 ‘지식’에 종속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이 오히려 개인을 구속하는 도구로 전략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이렇듯 진도준은 겉보기에는 권력의 중심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그를 보다 치열한 감시와 견제의 대상으

로 만든다. 과거 머슴 윤현우가 배제되고 통제되던 존재였다면, 지금의 진도준은 감시받고 이용당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억압을 겪는다. 특히 진양철 회장의 신임과 기대는 축복이자 또 다른 형태의 ‘조련’이며, 그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수련하고 억제해야 한다. 이는 근대 권력이 푸코가 말한 ‘규율권력’¹⁵의 형태로 작동한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결국 〈재벌집 막내아들〉의 회귀 서사는 계급 상승이나 복수 완성의 환상이 아니라, 규율권력이 신분과 위치를 바꾸어도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작동하며, 심지어 더 정교한 형태로 내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머슴에서 창업주의 손자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권력의 시선·기대·기준에 복종하는 규율된 신체로 남는다. 억압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외부적 폭력에서 내적 자기 통제와 끝없는 증명 요구로 변형될 뿐이다. 이로써 회귀는 억압의 해체가 아니라 규율권력의 연속성과 변형 가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한다.

또 다른 관계성의 전개 양상은 진도준과 그의 할아버지 진양철 사이에서 발생한다. 진양철은 본래 진도준의 아버지인 진윤기를 가문 밖 인물로 간주하며 배제했지만, 진도준에게는 유독 깊은 애정을 드러낸다. 대표적인 장면은 다음과 같다.

“진 진짜가 좋아요. 할아버지.”

“뭐라?”

“플라스틱 말보다는 진짜 말이 좋구요, 저기 있는 자동차 장난감보다는 썩썩 달리는 진짜 차가 좋아요. 배도 목욕탕에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떠다니는 진짜 배를 갖고 싶고요.”

조금 놀랐을 거다.

아니, 아주 많이 놀랐다.

진 회장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14 산경, 앞의 책, 7화.

15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16, 12쪽.

화났을 때 웃고 놀랐을 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철면은 감정을 잘 숨긴다.

“진짜라... 우리 도준이는 진짜가 무슨 뜻인지 아니?”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아니, 어떤 대답을 원할까?

망설이지 말고 대답해야 한다. 즉흥적인 것처럼. 어린애답게.

“네.”

“뭘까? 그게?”

“할아버지 거요.”

놀란 표정으로 변한다. 이번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나 보다.

“할아버지가 만드는 자동차, 배, 텔레비전은 모두 진짜잖아요. 난 그런 것들이 좋아요.”

-〈재벌집 막내아들〉 005, 재벌 총수의 생일 2 중¹⁶

이 장면에서 ‘가짜’와 ‘진짜’의 대립은 단순히 물건의 실체 유무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통성과 권위, 정체성과 인정 사이의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진도준이 반복적으로 ‘진짜’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자신이 단순히 재벌가의 손자라는 걸모습—즉 ‘가짜’ 정체성—이 아니라, 진양철이 창조한 실질적 자본 질서의 중심에 서 있는 ‘진짜’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임의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고정되거나 재정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¹⁷ 즉, 진도준은 언어를 통

해 자신을 ‘진짜’로 재정의하며, 진양철이라는 중심 권위와의 관계 안에서 ‘가짜’라는 기표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

주인공 진도준은 전생의 ‘머슴’이라는 억압된 신분에서 벗어나 재벌가의 ‘진짜’ 구성원이라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선택한 경로는 억압 구조 자체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의 정점에 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억압 구조가 단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기제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진양철 회장 집안의 식사 자리에서 진도준의 어머니(진도준의 친모)가 손윗동서들에게 당하는 구박과 모멸을 목격하는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 장면에서 어머니는 며느리로서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족 내 권력 서열 최하위에 위치하며 ‘일하는 아줌마처럼’ 부당한 심부름을 당하는 억압의 희생양으로 그려진다. 이는 전생의 윤현우가 재벌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버려진 것처럼, 새로운 삶의 무대에서도 여전히 핏줄과 서열에 의한 차별이라는 억압 구조가 잔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진도준의 반응은 억압 구조를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모멸을 당하는 어머니를 보며 “이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분노의 크기가 처음 진영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와 다르지 않을 정도였다.”¹⁸ 라고 분노하며 억압에 대한 본능적 반발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는 이 분노를 즉각적인 복수나 구조의 해체로 해소하는 대신, 권력의 핵심에 다가서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어머니의 수모를 막기 위해 잠시 어머니의 뜻(그룹 경영 참여 반대)을 따르는 척하며 위선을 보이던 진도준은, 결정적인 순간 할아버지에게 “전 커서 할아버지처럼 큰 회

16 산경, 앞의 책, 5화.

17 진도준은 기존에 ‘정통 계승자’라는 기의가 진양철의 장남이나 장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상식을 전복하고, 자신이 그 기표의 새로운 주체임을 언어와 상징을 통해 설득한다. ‘할아버지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자신이야말로 진양철의 정신과 유산을 가장 정확히 계승할 인물이라는 상징적 주장을 담고 있다(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0, 137~145쪽). 또한 이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는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구조론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귀환’ 서사 구조와도 유사하다. 이방인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자이지만, 신화의 특정 전환점에서 중심 인물로 복귀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재편한다. 진도준 역시 본래는 가문 밖의 존재—즉 ‘가짜’ 혈통의 연장선에 있는 인

물—이었으나, 언어적 상징 작용을 통해 정통성의 중심으로 복귀한다. 이는 단순한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문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징 투쟁이자 인식의 전복이라 할 수 있다(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신화학 1: 날것과 익힌 것』, 김진영 역, 한길사, 2004, 36~42쪽, 226~343쪽).

18 산경, 앞의 책, 6화.

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¹⁹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궁극적인 야망을 관철한다. 이 선언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억압의 희생자’에서 ‘억압의 주체’로의 자리바꿈을 명확히 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진도준이 ‘사장님’이 되겠다는 것은 그가 혐오했던 비서 윤현우의 삶을 가능하게 한 순양그룹이라는 억압 기구의 수장이 되겠다는 의미이다. 그는 억압의 사슬을 끊는 대신, 스스로 가장 강한 고리가 되어 그 사슬을 통제하려 한다. 이러한 서사적 전개는 회귀 서사가 외형적으로는 개인의 성공과 해방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억압 구조를 해체하지 않은 채 그 지배권을 교체함으로써 구조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억압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정교하고 내면화된 형태로 재생산되며, 주인공의 자유는 곧 새로운 지배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재벌집 막내아들>은 ‘머슴 ↔ 주인’, ‘이방인 ↔ 정통’, ‘가짜 ↔ 진짜’라는 이항대립 구조를 통해 주인공이 상징 자본과 인식 체계를 어떻게 전유하고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정체성과 계승의 의미가 혈연이 아닌 수행성과 상징적 합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서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처럼 이항대립성을 관찰해 본 결과, 억압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 회귀 서사의 반복적 재서사화와 억압구조

<재벌집 막내아들>은 ‘머슴 ↔ 주인’, ‘이방인 ↔ 정통’, ‘가짜 ↔ 진짜’라는 일관된 이항대립 쌍을 끊임없이 재배치하고 반전시킨다. 기존 선행 연구들이 주로 계급 상승 판타지 또는 복수극이라는 표면적 주제에 머물렀다면, 본고는 이 대립항들이 단 한 번의 전복으로 끝나지 않고 서

사 전반에 걸쳐 반복·재생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서사 전략이며, 다음의 세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첫째, 이항대립의 반복은 억압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위치와 형태만 바꿈으로써 자본주의 체계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회귀 서사는 머슴으로서의 외부적 착취와 배제를 제거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내부의 규율, 형제간 경쟁, 창업주의 기대, 미래 지식에 대한 책임이라는 새로운 억압으로 대체한다. 대립항이 한 번 뒤바뀌고 끝난다면 독자는 억압이 소멸한 것 같은 착시를 얻고 서사는 종료되지만, 작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립항을 세우고 다시 반전시키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억압은 필연적이라는 전제를 자연스럽게 내재화시킨다. 결과적으로 회귀 서사는 체제 전복이 아닌 체제 내부에서의 위치 이동만을 허락하는 재서사화를 통해 독자는 현실의 계급 구조를 비판한다고 착각하면서도 그 구조를 재확인하고 수용하는 이중적 효과를 경험한다.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차이’는 의미 형성의 핵심²⁰이며, <재벌집 막내아들>의 회귀 서사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윤현우는 ‘머슴’이라는 정체성을 살아갈 때에는 자기 자신의 가치조차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회귀 이후에도 진도준으로서의 정체성은 그가 ‘진짜’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과 입증의 과정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에서 진도준은 억압을 외부적 강제력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주체로 변모한다. 이는 푸코가 말한 ‘규율 권력’²¹의 작동 방식과 맞닿아 있으며, 억압은 외부의 지시가 아니라, 주체 내면에 내재된 규율로 작동한다. 진도준은 가족의 기대, 기업의 규율, 미래의 지식이라는 다양한 층위의 억압을 내면화하며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이러한 재서사화는 단일한 억압 구조보다 훨씬 더

20 소쉬르, 최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0.

21 미셸 푸코, 앞의 책, 179~185쪽.

19 위의 책, 10화.

강력하고 포괄적인 통제를 가능케 한다. 회빙환 모티프가 보여주는 황홀한 풍경은, 그 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도준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성과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린다. “성과주체란, 일찍이 푸코 말했던 규율사회 이후의 성과사회를 살아가는 주체이다.”²² 즉, 회귀 이후의 진도준은 여전히 재서사화를 통해 성과주체가 되기 위한, 이상적인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반복되는 반전은 독자의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는 심리적 설계이다. 소쉬르가 지적했듯 의미는 차이의 체계 속에서만 발생한다. ‘머슴’이라는 부정적 기표가 사라지면 ‘주인’이라는 긍정적 기표의 쾌감도 약화된다. 따라서 작가는 과거의 굴욕과 모멸감을 충분히 길게 묘사하여 독자의 분노와 열등감을 극대화하고, 회귀 후 일거에 반전시켜 강렬한 사이드 감정을 제공하며, 곧 새로운 대립항을 제시하여 긴장을 재형성하고, 다시 반전시키는 과정을 화마다 반복한다. 이는 한 번의 큰 카타르시스보다 작지만 빈번한 카타르시스가 중독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웹소설 산업이 실증적으로 입증한 기법이며, 독자의 도파민 분비 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정서적 중독 구조라 할 수 있다. 즉, <재벌집 막내아들>에서의 회귀 서사는 독자에게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서사적 장치를 활용한다. 독자는 윤현우의 회귀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체험하며, 부당한 사회 구조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판타지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현실 체계를 전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체계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위치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억압적 구조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회귀 서사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제기하면서도, 그 비판을 구조 내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통해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는 대중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체계 내부에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하며, 재서사화를 통한 억압 구조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처럼 회귀물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현대 독자의 무의식을 조직하는 정서 장르로 기능한다. 또한, 작가론적인 측면에서 회귀 서사는 장르적 선택임과 동시에 전략적 선택이다. 한 번의 설명으로 인물의 배경과 능력을 합리화하고, 사건 전개에 동기를 확보하며, 독자에게 빠르게 감정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서사적 효율성을 갖는다. 게다가 회귀물은 본격 문학에 비해 서인간 욕망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르이고, 이것은 독자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더 빠르게도 느리게도 나타날 수 있다.²³ 즉, 플랫폼 기반 웹소설 산업에서 ‘지속적인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이다.

셋째, 지속적인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이항대립의 반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경제의 결제 유도 논리에 최적화된 산업적 전략이다. 21세기는 웹소설의 호황기라 불릴 정도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웹소설과 웹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웹소설을 향유하며 새로운 독서 생태계가 형성되었고, 특히 남성향 장르에서의 독자들은 ‘사이다식 전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독자들이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권력, 명예, 재능을 대리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인공 진도준(윤현우)은 과거의 억울한 죽음과 계급적 모멸감을 딛고, ‘회귀’를 통해 모든 정보를 갖춘 전지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 복수를 실행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나 복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화된 카타르시스 제공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는 주인공의 승승장구, 적절한 복수, 계급 전복을 통해 강력한 대리만족을 얻는다. 웹소설은 시장 특성 상, 유료화 지점 이전에 독

22 이시성,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이 보여주는 성과주체의 현대적 판타지」, 『오늘의 문예비평』 127, 2023, 251쪽.

23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4(2), 미래연구학회, 2019, 174쪽.

자를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어야 수익이 발생한다. 회귀물은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 회귀 직후 첫 번째 극적 반전은 1~3화 내 발생하여 빠른 몰입을 유도하고, 그 직후 새로운 위기와 대립항이 즉시 제시되어 독자가 추후 전개를 기대하게 만들어 유료 화수를 클릭하게 만든다. 이항대립의 반복과 억압구조는 곧 다음 화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구조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이항대립이 끊임없이 반복·재배치되는 이유는 억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않으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은연중에 재생산하고, 독자에게 빈번하고 강렬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경제의 결제 유도 논리에 최적화된 서사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독자는 수백 화를 결제하며 주인공에 몰입하여 이번엔 진짜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복하지만, 서사가 종료될 때까지 진도준은 새로운 억압의 형태 속에 놓여 있다. 이 모순적인 억압 구조야말로 21세기 한국 웹소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구조적 토대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재벌집 막내아들>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재서사화를 통한 개인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 질서를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재서사화는 플랫폼 웹소설의 결제 시스템과 결합하여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며, 이는 결국 콘텐츠 소비 행위를 자기 통제의 연장선에 놓아 억압 구조를 산업적으로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인공은 달라진 지위와 정체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방식의 억압 속에서 살아간다. 이로써 회귀 서사는 억압의 재편과 판타지의 제공이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독자에게 현실 비판과 욕망 충족이라는 양면적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 대중 서사의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고의로 발생시켜 문제 발생-해결-상승감이 이어지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반복하는 억압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을 ‘머슴/주인’, ‘이방인/정통’, ‘가짜/진짜’라는 이항대립 성과 그 반복적 재서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회귀 서사가 단순한 계급 상승과 복수를 위한 판타지가 아니라 억압의 형태를 변형·재서사화하는 정교한 구조적 장치임을 밝혔다. 회귀 서사는 주인공 윤현우를 진도준으로 전환시키며 겉으로는 외부적 착취와 배제라는 억압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 내부의 규율과 경쟁 심리에 대한 책임이라는 보다 내재화된 억압으로 대체한다. 이는 푸코가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이행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억압이 외부의 강제에서 주체의 자기 통제와 끊임없는 수행으로 이동하는 전형적 양상이다. 결국 회귀 서사는 억압을 해체하는 혁명이 아니라, 그 형태만 바꾸어 재서사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장하는 안전한 위로 장치로 기능한다. 동시에 이 반복적 재서사화는 산업적 차원에서도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과거의 모멸감을 충분히 묘사한 뒤 단숨에 반전시키고, 곧바로 새로운 대립항을 제시하는 고리형 구조를 매화 반복함으로써 작지만 빈번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독자의 정서적 중독을 극대화한다. 이는 21세기 플랫폼 기반 웹소설 산업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회귀 직후의 극적 반전은 무료분량 내 빠른 몰입을 유도하고, 이후 새로운 위기 → 해결 → 새로운 위기의 연쇄는 독자를 유료화 지점을 넘어 수백 화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항대립의 반복은 곧 다음 화 클릭을 강제하는 알고리즘적 구조 그 자체이다.

결과적으로 <재벌집 막내아들>은 회귀 서사를 통해 독자에게 현실의 부조리를 통쾌하게 뒤집는 해방의 환치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억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위치와 형태만 바꾸어 재서사화함으로써 자본주의 권력 구조의 정당성을 은연중에 재생산하고, 독자에게 강

력한 정서적 중독을 제공하며,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삼중의 기능을 수행한다. 독자는 이번엔 진짜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수백 화에 걸쳐 반복하지만, 서사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진도준은 새로운 억압의 형태 속에 놓여 있다. 이 모순적 구조야말로 회귀물이 단순한 장르 유행을 넘어 한국 대중서사의 지배적 마스터플롯으로 자리 잡은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현대 독자들이 왜 체제 비판적 서사라 믿는 작품을 끊임없이 결제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이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결국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하는 가장 정교한 판타지이자 가장 효율적인 통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회귀 서사라는 서사적 기획은 다시 태어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팔면서,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든 억압은 계속된다는 현실을 은폐한다. 이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성과주의적 특성을 가장 대중적이고 중독적인 형태로 재현한 문화 현상이자,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가 자본과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결합시킨 결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산경, 『재벌집 막내아들』, 문피아, <https://novel.munpia.com/69583>, 2017.

2. 단행본 및 논문

김경애, 「회빙환과 시간 되감기 서사의 문화적 의미: 웹소설 〈내편과 결혼해줘〉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25, 한국산학기술학회, 2024.

김나은, 「현대 판타지 웹소설 흥행요인 분석: 〈재벌집 막내아들〉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60,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4.

김미현, 「웹소설에 나타난 '회귀와 환생'의 욕망코드: 인과계층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4(2), 미래학회, 2019.

김창현, 「서사의 장르적 특성에 기초한 고전소설의 재창조 모형 연구: 〈홍길동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8,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16.

박지희, 「한국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 현실 재현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66, 인문콘텐츠학회, 2022.

안상원, 「한국 웹소설의 회귀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여진숙·김영학,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내재한 인식고찰」, 『역사와융합』 8(5), 바른역사학술원, 2024.

오원교, 『구조주의와 기호학』, 신아사, 2007.

유해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을 통해 본 귀족적 영웅서사에 대한 지향: 환몽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9, 민족어문학회, 2023.

이시성,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이 보여주는 성과주체의 현대적 판타지」, 『오늘의 문예비평』, 2023.

전철희, 「〈재벌집 막내아들〉의 정치적 무의식」, 『동아시아문화연구』 92,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3.

조형래, 「웹소설의 역사-현실과 게임적 세계관: 산경의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9(3), 대중서사학회, 2023.

최지운, 「TV드라마 속 회귀물의 함의 연구: 〈어게인 마이 라이프〉와 〈재벌집 막내아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8, 인문콘텐츠학회, 2023.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신화학1: 날것과 익힌 것』, 한길사, 2004.

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역, 『일반언어학강의』, 민음사, 1990.

Abstract**A Study on the Meaning of Binarism and Its Oppressive Structure in the Web Novel <Reborn Rich>**

Hong, Woo-Jin | Suse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gression narrative of the web novel *Reborn Rich* (also known as *The Youngest Son of a Conglomerate*) by analyzing the binary oppositions of 'servant/master,' 'outsider/legitimate heir,' and 'fake/real,' and explores how their continual reconfiguration through resubjectification exposes the persistent mechanisms of oppression. Although the protagonist Jin Do-jun appears to escape external oppression by regressing to the past and rising from the lower to the upper class, the regression narrative ultimately reveals that this ascent does not eliminate oppression but replaces it with more refined and internalized forms—disciplinary power, competitive pressure, and the burden of expectation within the domain of power itself.

The repetitive deployment of these binary oppositions serves three interrelated functions: it ideologically reinforces the endurance of the capitalist order; it delivers frequent, intense cathartic moments that foster emotional addiction in readers; and it operates as an industrial strategy perfectly tailored to the pay-per-chapter logic of platform-based web novels. By repeatedly inverting binary pairs, the regression narrative allows readers to vicariously experience societal absurdity and achieve a sense of psychological liberation through an overturned identity.

In this way, the regression narrative simultaneously reflects contemporary desires and social contradictions while channeling their temporary resolution through the "cider-like" (highly gratifying and rapid) plot progression that characterizes the genre. *Reborn Rich* thus exemplifies how the regression narrative reorganizes oppressive structures under the guise of liberation and, in doing so, reveals a key reason why web novels—particularly the regression subgenre—have become a dominant master plot in twenty-first-century Korean popular literature and culture.

Keywords Web novel, Regression, <Reborn Rich>, Binary opposition, renarrativization, Structure of oppression.
